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1월 13일(금)

(율력 12월 16일)

Пятница

13 января 2017г.

№ 1(11671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1월 13일은 러시아 출판의 날이다.

▲ 설옥순씨는 사할린중앙인쇄소에서는 약 50년 일하고 있다. 언제나 착실한 그녀는 동료들의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식기자 촬영)

## 올해 사할린주 투자프로그램 비용은 244억 루블리

2017년과 2018-2019년 계획기간의 지역 투자개발 프로그램이 사할린주정부의 결정으로 2016년 12월 26일에 통과되었다. 서류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자금은 총 542억 루블리이다. 2017년에는 248억 루블리, 2018년에는 178억 루블리, 2019년에는 116억 루블리로 책정되었다. 연방예산에서는 이에 4억 6000만 루블리가 배당되고 나머지 비용은 지역예산에서 충당해 나가야 한다.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 순위는 건설분야와 사회적 분야 대상의 개건을 위해서는 3년간 188억 루블리, 주택 건설 부문은 120억 루블리, 교통 인프라는 118억 루블리, 공공경리 제반구축에는 78억 루블리, 가스 개발과 종합연료에너지에는 27억 루블리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투자 프로그램구축회의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문은 보건분야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구입과 건설(각 구역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만 46세대, 2017년 총 지출액 2억5000만 루블리), 쿠릴섬들에서 1.5 헥타르의 면적에 온실 건설(이투루프섬과 쿠나쉬르섬에서 두 종합단지 건설에 약 1억 루블리), 쿠릴의 항구개발, 토마리구역과 일리인스코예촌 사회적 및 주거적 문제 대상에(14억 루블리)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고 주내 모든 구역들에 학교, 유치원, 문화회관들을 건축하고 대규모 도로공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개건과 함께 활주로 개건 등 10억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관광산업 내의 발전 프로그램 실시는 상기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코르사코브구역 프리고로드노예촌에는 산책로에 1870만 루블리를, 관광복합체 <투나이차>에는 1억7200만 루블리를, 오토도로에 호숫가에는 캠핑을 할 수 있도록 128만 루블리를 지급하여 도로와 전력 전송라인에 따른 건설작업을 할 계획이다.

네벨스크구역의 모넨섬에는 부두 2 곳과 산책로 2 곳, 휴게소 건설에 주예산에서 2억5000여만 루블리를 지급하게 된다.

<고르너 워스두흐> 스포츠관광단지개발에는 18억 루블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경제개발부 사이트의 공시에 따르면 투자프로그램 일환으로 총 260개 대상을 건설하거나 개건할 방침이다.

## 주지사, 공사중인 의료기관 찾아

일전에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건설 중인 의료기관들을 점검했다.

그는 얼마 전에 준공된 주중앙병원 외과의 3층 건물부터 점검에 나섰다. 이 건물은 2017년 1/4분기에 운영될 것이다. 현재는 이곳에서 설비와 장비를 설치하는 중이다.

외과 건물에는 집중치료실, 병리조직검사실, 면역조직검사실, 중앙멸균실, 임상진단실험실과 엑스레이방 2개가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신 장비들로 갖추어질 7개의 수술실들이다. 중앙진료소 활동에서는 수술이 약 25% 차지한다. 2015년에 진료소에서 3026회 수술을 했는데 그중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966회 수술이 이루어졌다.

사할린주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은 "우리는 벌써 전문가들(의사와 관리 직원)을 연수 시켰다. 그래서 최신 장비가 운영된 날부터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장을 돌아본 주지사는 "새 외과건물의 운영은 섬지역 보건분야 시스템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제마코 지사는 주산기 공사 현장도 찾았다.

와집 잘로즈너 주건설부 장관은 주산기 건물 공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건물은 여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5층의 건물(면적 3만2000평방미터)은 이미 세워졌고, 문과 창문 설치를 비롯 현재 전기, 수도, 난방 공급, 그리고 환기시스템과 도배 작업을 하는 중이다. 3월에는 모든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의료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한다.

130 환자석을 갖춘 주산기센터는 해마다 수천명의 임산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제마코 주지사는 최초의 주산기 센터가 최신 장비와 고급 전문가들로 갖추어질 전망에 만족감을 표했다.

(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 단신

### 1월 13일부터 연금자 5000루블리씩 지급

러시아연방 연금폰드에 따르면 연금자들은 2017년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지원금 5000루블리씩 받게 된다.

5000루블리의 일시 보조금은 2016년 하반기에 계획한 연금연동 대신 지급된다. 이 보조금은 모든 연금자(퇴역군 포함)들에게 지급된다.

사할린주에는 16만5000여명의 연금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 한인1세 한국에서 무료 진료 받을 것

오는 1월 14일(토) 사할린 한인 1세 22명과 그들의 보호자 16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인요한)이 실시하는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 사업>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은 서울 동대문 특구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게 된다.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신임회장도 1세들과 동행했다. 그는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초청진료사업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 고영순 마카로브한인회장으로 선출

지난 7일 마카로브에서 25명이 모인 가운데 본회 결산선거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그동안 부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고영순 씨를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고 회장은 앞으로 주한인회, 마카로브 구역 행정부와 손잡고 활동할 것을 표명했다.

현재 고영순 씨는 마카로브의회 의원이자다.

### 사할린주, 비싼 식품가격의 5지역중 하나

2016년 12월에 사할린주에서 최저 식품세트 월 가격은 5355루블리에 해당했다. 이러한 지표로 도서지역은 이미 몇년간 국내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할린보다 식품세트 가격이 더 비싼 지역은 추코트카(9144루블리), 마가단주(6499 루블리), 캄차트카(6221 루블리)와 사하공화국(야쿠치아, 6147루블리)이다.

러시아통계청 사이트에는 사할린주에 식품세트가격이 2015년 12월부터 45루블리로 인상되었음을 밝혔다.

2016년 12월 러시아 평균 최저 식품세트가격은 3701.9루블리로 가장 저렴한 곳은 쿠르스크주(2999루블리)다.

##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 2016년을 돌이켜보며

## 새고려신문에 게재된 사할린한인 사회계의 주요 사안·행사·사건·이벤트

2016년은 사할린한인사회계에서 주한인회 회장 선거와 함께 많은 변화와 중대한 행사들이 있었던 해였다.

1월 25일 - 2월 1일 간 - KIN(지구총동포연대) 대표단이 사할린을 방문해 돌린스크, 마카로브, 코르사코브 등지를 찾아 사할린동포 1세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달력> 직접 전달.

2월 6일 - 음력설을 앞두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 동양어문학교에서 제1회 시동양언어축제 개최.

2월 8일 - 음력설. 사할린주한인회가 2월 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한 행사를 비롯하여 사할린 여러 지방에서 음력설맞이행사 개최.

2월 8일 -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개설 20주년 기념 <4계절>공연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

2월 26일 - 3월 3일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대사관 주최로 개최된 제1차 전국외국어학원 학생 노여경시(평양) 수상자 5명이 사할린 방문.

2월 27일 -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결산회(2015년 총결)의 소집.

3월 13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사물놀이그룹 공연.(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청소년이니셔티브센터) 그라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3월 25일 - 한국관광공사,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한국관광상품전> 개최. 방문객 수는 500여 명 정도.

4월 4일 - 포항시 대표단 사할린을 방문하여 동포사회계 대표들과 간담회 가짐.

4월 5일 - 조선학교 교사,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 공사 조선어라디오방송국 아나운서로 활동하셨던 김화순 씨가 81세를 일기로 별세.

4월 12-14일 -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의료지원 사업' 추진 관련 조사를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총재 사할린 방문.

4월 17일 - 사할린한국교육원이 한인문화센터에서 제 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76명 응시.

4월 11-19일 - 사할린대표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으로 평양 방문. 사할린국립대 김일성종합대학과 교류협약.

4월 21일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제 13차 사할린한인동포단체 대표자 회의(주최: 대한민국 적십자사; 사할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모스크바, 토스토브, 카자흐스탄 사할린단체장 참가)

4월 22일 - 사할린주정부 · 사할린국립대 · 사할린한

국교육원 주최 아래 한국어말하기대회 개최.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육 25주년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서 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은 <우리글 한글>, <한국어와 나의 삶>주제로 발표.

4월 29일 - 사할린에서 첫 라이온스클럽 창립(가가린 라이온스클럽, 천영곤 회장)

5월 8일 - 어버이날 기념. 한인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 개최 (주최: 사할린한국교육원 · 주한인회. 주관: <소망>어린이창작협력회. 후원: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 주여성회).

5월 28일 -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결산선거회의에서 회장으로 엄옥순 씨 선출.

5월 28일 - 2016 제2차 한식요리콘테스트대회 개최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와 사할린한국교육원 주최, 우승자 김 파벨 조리사 방한 기회와 세계한식요리콘테스트 본선경연 출전권 획득).

6월 18일 - 사할린 영주귀국자와 대구시민 200여 명이 함께 하여 대구에서 처음 <사할린의 밤> 개최 (주최: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회장 하태균). 행사에는 사할린대표단(주노인회 김홍지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순옥 회장, <소망> 어린이창작협력회 김준경 회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 등)을 초대 · 참석함.

6월 28일 - 롯데관광의 백현 사장 사할린을 방문하여 주정부에서 크루즈 문제 논의.

7월 3-10일 - <사할린주 ·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의 경험 공유>주제로 사할린주에서 포럼 개최 (<제5차 국제학술대회: 사할린한인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한러 경제협력>, <사할린 한인문화: 현재와 미래>간담회, <한러 국제 협력: 사할린주 사회적 기업> 워크숍, <세계 한인 사회와 문화적 외교>특과정 등 행사를 펼침. 주최 · 주관: 주정부, 사할린주 사회적 기업가협회, 한림대 러시아연구소(한국), 사할린국립대 등)

7월 2일 - 광복 71주년 기념, 대조국전쟁 71주년 기념 러한 합동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회 (농어촌 희망 청소년오케스트라, 뉴월드오케스트라/한국/, 유즈노사할린스크시리프오케스트라 연주자 총 70명, 지휘: 금남세 세계적인 지휘자)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스틀리차>비즈니스센터 콩그레스홀에서 성황리에 거행.

7월 18일 - 김 파벨 사할린 조리사 '세계 한식요리 콘테스트'대회(서울)에서 3등 획득.

7월 23일 - 마카로브에서 제3회 <우리는 함께 있다.> 민족 간 축제 개최.

7월 17일-30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교사와 학생 28명 한국 진도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연수.

7월 25일-28일 - 제2회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실시. 학생 15명 4일간 코르사코브, 포자르스코예, 네웰스크 방문. (주최: 사할린주한인노인회, 후원: 재외동포재단 · 사할린한국교육원 · 주이산가족협회 · 주한인회 등)

7월31일 - 8월 6일 대한민국 중·고등·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17명)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아니와, 코르사코브, 홀스크에서 봉사활동.

8월 7일 - 사할린 유명 조각가인 니 아나톨리 러시아 사회연방공화국 공훈 미술가 90세를 일기로 별세.

8월 12일 - 사할린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에서 부르는 두루지야의 아리랑>공연 (연주: 한국의 <두루지야> 플루트앙상블).

8월13일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노래자랑>' 사할린예심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개최(진행자: 송해 KBS전국노래자랑 사회자). 우승자 이영옥 씨와 2 위를 한 11세의 랍추크 폴리나는 한국 본선 노래자랑에 출전권 획득.

8월 15일 - 광복절 71주년 기념, 사할린한인문화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하여 국제문화공연교류회(한국, 양평수 회장)가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동포 위문공연 펼쳐(미리내색스폰오케스트라를 비롯 한국 소프라노, 가수 등 총 50여 명이 출연).

8월 15일 - 사할린을 방문한 한국자유총연맹 신홍식 부총재 사할린에 본연맹 지부 신설 의사 표명.

8월 15일 - 광복절. 광복71주년 기념행사가 동포들이 사는 사할린주 내 곳곳에서 개최됨.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는 <코스모스>운동장에서 20일 행사를 진행.

8월22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대구의 밤>행사 진행.

(주최: 민족통일대구광역시청년협의회와 주한인회, 주관: 유즈노사할린스크지역 <소망>어린이창작발전협력회).

행사에서 이해숙 경기민요연구원 원장이 자신이 창작한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발표.

8월 24일 -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소장으로 부임한 황명희 씨가 사할린 도착.

8월 26일 -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소장 임기가 끝난 사공장택 씨가 귀국.

8월 28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지에서 일제강점기 사할린강제징용희생자 추념제 진행.

(주최: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무원 스님, 부산진구불교연합회)

8월 29일 - 한국 대전시대표단 주정부에서 보건의료협력 강화 문제를 논의.

9월 2일 - 청호나이스 정회동 회장 코르사코브 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하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코르사코브 제4중학교에서 독주.

## 이 모 저 모

### <카펠>앙상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국제페스티벌에서 수상

사할린 아동합창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상을 가지고 돌아왔다. 1월 6-8일간 '북부' 수도에서 개최된 <별의 빛> 국제성탄페스티벌-콩쿠르에 코르사코브 청소년회관의 <카펠>앙상블 학생들과 아동들이 올라 코브체바의 지도 아래 참가했다. 여기에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핀란드의 청소년들도 참가했다.

<별의 빛>은 <우리 미래>재단 기획의 일환으로 첫 페스티벌이 2004년에 개최된 이래 전통적인 행사가 되어 다른 나라에서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할린 대표로는 학생 39명과 성인 18명으로 구성된 규모가 큰 팀이었다. 아동합창단은 연령별로 8세미만, 9-11세, 혼성 세 그룹으로 나뉘어 출전했는데 이들 세 그룹이 모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상장과 부상 외에도 학생들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관광에 대한 추억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매해 주차원에서는 <카펠>앙상블을 각종 콩쿠르에 참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앙상블은 2015년에는 중국으로, 2016년에는 하바롭스크으로도 떠났었다.

### Ансамбль "Капель" стал призе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естиваля-конкурса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Юные сахалинские вокалисты возвратились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 наградами. 6-8 января в Северной столице проходи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Сияние звезд", в котором вместе с одаренными детьми из Белоруссии, Украины, Казахстана, Финляндии и других стран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ребята из ансамбля "Капель" корсаковского Дома детства и юношества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Ольги Кобычевой. "Сияние звезд" — один из проектов фонда "Наше будущее". Впервые фестиваль состоялся в 2004 году и с тех пор традиционно собирает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Сахалинская делегация была большой — 39 детей и 18 взрослых. Ю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выступали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до 8 лет, 9-11 и смешанной групп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трех групп стали призерами. Кроме дипломов и наград они привезли с собой воспоминания об экскурсиях по Москве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у.

"Капель" старается ежегодно выезжать на конкурсы за пределы области. В 2015 году дети были в Китае, в 2016-м — в Хабаровске.

### 사할린 북부 소수민족의 놀이와 에트노스 포츠에 대한 책 출간

지난 연말에 우랄국립대학교(예카체린부르크) 출판사에서 생물학자이며, 교육학 박사, 러시아연방 체육문화 및 스포츠 공훈자인 빅토르 프로코펜코 교수의 학술서 <사할린 북부 소수민족의 놀이, 경기와 전통스포츠>가 출간되었다.

새 책에서 빅토르 프로코펜코는 러시아 문학에 장기간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할린에 거주하는 북방 민족 - 님프, 오로크(우일타), 에벡크, 나나이, 아이누들의 전통놀이들에 대한 귀한 자료들을 소개했다.

이 책은 일반학교 체육교사, 학령 전 교육기관 체육강사, 청소년스포츠학교 민족스포츠트레이너, 전문학교와 대학, 그리고 보충교육의 교사용으로 지정되었다.

### Издана книга об играх и этносporte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издательстве Ураль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Екатеринбург) вышла в свет книга кандидата би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доктора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заслуженного работн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Виктора Прокопенко "Игры, состязания и этноспорт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В своей новой книге Виктор Прокопенко на основе многолетних полев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анных отеч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едставил уникальный материал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играм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Сахалине — нивхов, ороков (уйльта), эвенков, нанайцев, а также айнов.

Книга предназначена для учителей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школ, инструкторов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ренеров ДЮСШ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дам спорта,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колледжей и вузов, педагогов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8면에 계속)

9월 2일 - 제23회 사할린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추념행사 개최. (주최: 한국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회장 이용택)

9월 4일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본선에서 사할린 학생 폴리나 랍추크(11세) 인기상 획득.

9월 9일-17일 제6회 <크라이 스웨타(세계의 끝)>사할린국제영화제 진행, 경쟁프로그램에는 영화 15편이 참가했는데 영화 <푸른 날>(감독 임창재)이 한국을 대표함.

9월 18일 - 국가두마 선거의 날. 국가두마의 원으로 게오르기 카를로브가 선출.

9월 19일 - 사할린주정부가 한양대 국제병원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9월 21일 - 제4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희생자 유골 봉환 추도 및 환송식>. (한국으로 유골 11위 봉환).

10월 14일 -15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 한러우호협력축제 개최.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광주광역시청의 주최와 사할린주문화부, 사할린한국교육원, (사)임방울국악진흥회 주관 아래 개최). 축제는 개막식, 한국문인화 전시회, 김지문화축제, 임방울국악진흥회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와 한국전통예술 합동공연으로 이어짐.

10월 4일 - 사할린 출신의 의사 박 알렉세이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대행으로 부임.

10월 5일 - '세계 교사의 날'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학교 김 나탈리아 한국어교사 <러시아 우수교사>로 선정되어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로부터 수상.

10월 5일 - 세계 한인의 날. <사할린>텔레라디오공사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이 재외동포권익신장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대통령 표창장 수상. (전달식은 12월에 있었음).

10월 9일 - 한글날에 사할린국립대 임 엘비라 한국어교수가 한글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한글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에서 한국대통령 표창장 수상.

10월 26일 -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사진기자의 <귀환> 사진집이 한국에서 출간되어 이날 서울에서 이예식 기자와 김지연 한국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전시회가 열림.

10월 28일-29일 -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창설 25주년 학술대회 개최( 주제:<러시아와 한반도 국가들: 경제와 사회, 문화와 교육의 현황과 전망>)

10월 29일 - 모스크바에서 <사할린 시인과 함께 하는 문학 강연회>가 개최됨. 이 행사에

모스크바 사할린동포연합회가 사할린에서 허로만 시인과 장태호 시인을 초대함.

10월 28일-30일 - 독도사랑회 길종성 회장 사할린 방문, 현지 사회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에게 위문품 전달.

11월 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예술학교 개교 25주년 기념공연.

11월 11일 -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학교 개교 70주년 기념행사. (오랫동안 한글교육을 해온 기관).

11월 29일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2016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행사>개최(주최: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동포언론사 부문에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과 우리말방송 김춘자 국장이 주제 발표.

12월 1일 -2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홈스크에서 2016 사할린아리랑제 진행. (한국 아리랑전승자협의회, 성주 아이랑보존회, 사할린주한인회, 홈스크한인회 공동주최 및 주관)

12월 8일-10일 간 - 사할린동포 총 11명이 영주귀국함. (2016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은 한국정부의 지원만으로 이루어짐).

12월 10일 - 주한인여성회 주최로 <사할린 한인 역사와 영주귀국문제>란 주제 아래 세미나 개최.

12월 14일 -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 진료 사업 설명회 소집(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사할린주이산가족협회 협력). 첫 1세 22명이 정월에 한국에서 치료 받음.

12월 17일 - 사할린주한인회 결산건거대표자회의에서 신입 한인회 회장으로 박순옥 주이산가족협회 회장이 다수가결로 선출.

12월 18일 - 홈스크한인회장으로 박영순 씨 선출.

12월 21일 - 사할린주미술관에서 남과 북 작품을 함께 하는 <코리아 현대예술>상설전시관이 열려.

12월 24일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장으로 립종환 재선.

12월 24일 -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긴급 총회 소집. 엄옥순 회장 사임, 주요 임원 탈퇴.

12월 26일 -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소장 황명희)의 주최로 사할린한인사회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송년회 개최.

12월 28일 - <세계에서 하나뿐인 달력 2017> 1000부가 사할린에 도착 (제작 KIN/지구촌동포연대).

사할린한인사회계와 관련 행사와 사건이 많은 또 한 해가 지났다.

(본사 편집부)

# 사.할.린.

##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49호의 계속)

### 부디 편지만이라도 가닿기를

그 즈음, 사할린에서도 귀환을 요청하는 한인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1958년에 이루어진 일소 수교로 사할린에 잔류해 있던 일본인들마저 본토로 돌아가고, 일본인과 결혼해 가족을 이룬 일부 한인 역시 일본으로 떠난 것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 사할린 한인의 귀환운동이 본격화되었으나, 그때만 해도 주로 개개인이 요청하는 수준이었을 뿐 조직적인 활동이나 단체 결성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개인의 활동 사례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허조(토마리시 거주) 씨와 김영배(코르사코프 거주) 씨의 사례다. 두 사람은 각각 수십 명이 서명한 귀환청원서를 관련 기관에 보낸 끝에, 일본 정부가 입국을 인정하면 출국을 허락하겠다는 사할린 주 내무국의 회답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적 상실'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귀환의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이처럼 사할린에서의 한인 귀환운동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물꼬를 적극적으로 터준 주체는 일소 수교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만한 인물이 바로 박노학, 이희팔, 심계섭 씨 등이다. 이들은 가진 것 없이 일본에 들어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살아야 했음에도, 사할린에 남아 있는 한인들을 위해 <화태귀류 귀환자 동맹본부(이후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로 개명)>라는 조직을 결성해 일본 국회의원과 적십자사, 관련 부서들을 찾아다니며 사할린 한인의 귀환을 호소했고, 한국 정부와 대한적십자사 등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편지로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이 이산가족 간에 오가는 편지는 모두 검열의 대상이어서, 한국에서는 검열을 마친 편지가 체신부를 통해 전달되었고, 사할린에서는 아예 개봉된 편지가 전달되기 일췌였다. 그래도 오랫동안 사할린과 한국에 떨어져 살아온 가족들에게는 편지나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였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그래서 주소나 수취인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면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수소문을 하여 편지를 전달하거나 혹은 사할린으로 가는 답장을 직접 써서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1967년에 이르러 박노학, 이희팔 씨 등은 그동안 오고간 서신을 활용하여 사할린 한인 귀환운동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을 성사시켰다. 총 1천744세대 6천924명에 달하는 귀환 희망자 명단을 완성하여 한국, 일본, 소련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귀환 협상의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사할린 동포를 위한 방송을 해줄 것을 KBS에 호소했고, 그 결과 1972년부터 매일 밤 사할린 현지에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듯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둔 데 반해, 정작 한국 정부는 사할린 한인 문제와 관련한 한일 협상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이는 반공 반일주의를 내세운 이승만 정권의 근본적인 한계로, 그 점에서는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화태귀환 재일한국인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는 아예 협상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 짓밟힌 열망, 무너진 기대

사할린 현지에서 한인들의 귀환 요구가 날로 높아지자 1970년대에는 소련 정부도 이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앞서 일본인 아내와 일본으로 간 손정운 씨의 아버지 손치규 씨가 1971년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에 귀국한 최초의 주인공이 된다. 이에 더해 1972년 조업 중 나포되어 1년 이상 사할린에 억류되어 있던 문종하 선장도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이처럼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가 부상하게 되자, 1973년에 열린 일소 적십자회담에서 소련 적십자사의 토로안 총재는 "만약 일본 정부가 사할린 한인의 일본 거주 또는 일본을 경유한 한국 귀환을 허가한다면 그 출국에 협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4년 일본 정부는 47세대 201명의 귀환 희망자 명단을 한국에 전달, 한국이 이들을 받아들인다면 소련과의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안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자 일본은 소련에 출국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련은 돌연 말을 바꾸어, 사할린 한인의 귀환 문제는 일소 간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복송'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엔 북한측이 사할린 한인의 한국 귀환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사할린 한인에게 큰 기대를 갖게 했던 삼자의 합의는 깨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976년 3월 최정식, 6월 김화춘 씨가 단독으로 귀환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이어졌기에 아직 희망의 싹은 남아 있는 듯했다. 그러나 1976년, 사할린 한인 귀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희망은 착각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른바 '나훗카 4인 사건'이 그것이다.

(계속)

## 제 52 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공고

### 1. 목적

가.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나. 한국어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2. 대 상 :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3. 일 시 : 2017. 4. 16 (일) 09:30~16:00

가. TOPIK I : 오전 / TOPIK II : 오후

나. 입실시간 : 매 교시 20분 전

4. 장소 및 시행처: 사할린한국 한국교육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일 시 : 2016. 1.15 ~ 2016. 1.31

나. 장 소 :

6. 응시 수수료: 300루블

7. 시험결과 발표: 2016. 6.16 이후

	교시	영역	입실 시간	시작	종료	시험 시간 (분)
TOPIK I	1교시	듣기 읽기	09:10	09:40	11:20	100
TOPIK II	1교시	듣기 쓰기	12:20	12:50	14:40	110
	2교시	읽기	15:00	15:10	16:20	70
교 부 장 소		주 소			전 화	
사할린 한국교육원		유즈노사할린스크 미라 83-A			505696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 ИСТОРИЯ КОРЕИ



Итак в прошлой статье, мы с вами рассмотрели цепь событий в Корее,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в итоге к свержению династии Корё и утверждению на престоле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Однако, давайте сделаем небольшое отступление и вернемся к истории Корё – не к политической, о которой шла речь, а к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эт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едь новая династия зиждилась на порядках и основах свергнутой.

Общество Корё состояло из трех основных сословий – янбаны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аристократия), янъины (полноправные подданные, но не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ые), и чхонины (неполноправные). По возможностям социальной мобильности Корё была самым «демократич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из всех корейских –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сословию не была строго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и грань между ними была вполне преодолимой. В этом Корё ориентировалось не на Силлу (которая была сильно кастовым обществом), а скорее на Сунский Китай.

Практически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и иногда и более 60 % среди высших чиновников были выходцами из неянбанских семей. Ни в одну другую эпоху наверх не выбивалось столько людей неаристократического, и даже весьма низ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чно преданные правителям слуги, удачливые авантюристы, разбогатевшие купцы и военные узурпаторы составляли существенную часть приближенных к власти. Частные войны, длительн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нестабильность и монгольское господств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и этому положению. Не пользовалась корёская аристократия и какими-либо значительными юридическими привилегиями помимо общих для всего высшего чиновничества.

Основную массу населения составляли янъины – полноправные свободные крестьяне, ремесленники, торговцы (при этом занятия ремесленников и торговцев считались не такими престижными, как работа на земле). Янъинам был открыт путь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и часто им пользовались как путем выслуги лет, так и путем сдач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истема Корё строилась на основе 9 рангов, каждый из которых подразделялся на две степени – полную и неполную. Степень была главным фактором, которая определяла положение человека в обществе и власти, выдачу ему жалования и занят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олжности. Центральный бюрократический аппарат состоял из учреждений различных видов – высш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учрежд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научно-учебные центры, управления, канцелярии, склады, дворцовые учреждения, тогамы (учреждения, создаваемые на короткий срок для выполнения какой-либо задачи).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делении Корё делилось на провинции (то) во глав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Число провинций не было постоянным, в XI–XII вв. помимо их существовали два по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 – Восточный и Северный, включавшие по две-три провинции. Особый статус малых столиц имели три важнейших (кроме столицы Кэгён-Кэсон) города – Пхеньян (бывшая столица Когурё), Кёнджу (бывшая столица Силла) и Янджу (бывшая столица Пэкче), которые назывались также Согён (Западная столица), Тонгён (Восточная столица) и Намгён (Южная столица). Они имели специальные органы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идентичные столичным.

Армия Корё состояла из 2 кун и 6 ви, а также других соединений, делившихся на отряды (ён). Отряды возглавлялись чангунами (генералами). Военные чиновники, как и в Китае, пользовались меньшим уважением, чем гражданские, их рангово-должностная структура была как бы сдвинута в сторону низших степеней (не могли подняться выше 3-го ранга). Однако это было следствием дискриминации самой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как таковой. Какой-то особой военной касты в Корё не сложилось.

Главным объектом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было свободное крестьянство, сидевше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делах. Все крестьяне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возраста были военнообязанными. Ниже крестьян-янъинов находились чхонины – ноби (рабы) и люди презираемых профессий. Ремесленники были довольно многочисленны и относились в основном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у сектору. Купечество также было малочисленным. Хотя занятие торговлей считалось презираемым и статус торговцев был ниже, однако их материальное благосостояние было значительно выше, чем у свободных крестьян.

Внешняя торговля велась в основном купцами, которые сопровождали прибывающие иностранные посольства. Иностранцы посещали страну не часто, но обычно большими группами по несколько сот человек. Кидани и чжурчжэни торговали с корёсцами в приграничной полосе, а японцы – через город Кымджу, но главным торговым партнером Корё был разумеется сунский Китай. Традиционный экспорт Корё состоял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металлов, женьшеня, шелка, фарфора и бумаги, а из Китая завозились в основном предметы роскоши.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СО

## Первая поли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в борьбе за репатриацию на родину

(Начало в № 44, 47, 49, 50)

Квон Мен Сан, родился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Хамгён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проживал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 в 1939 году вместе с родителями и с тех пор проживал только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Закончил японскую школу и торговый техникум, после чего работал товароведом. 20 мая 1945 года был арестован япо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и содержался в тюрьме до 20 августа. Был выпущен полицией, пообещав работать на нее, но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 После прихода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работал учителем в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завскладом на бумажном комбинате, кладовщиком в объединении «Сахалинуголь», переводчиком в народном суде, десятником на шахте.

Квон Мен Сан познакомился с Син Чун У в 1950 году – тот попросился у него переночевать, когда приезж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После этого встречался с Син Чун У несколько раз, пока в 1951 году последний не предложил Квон Мен Сану вступить в партию «для борьбы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ейцев в Корею через ООН». В ходе следствия признал себя виновным в антисове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создании нелег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уд над всеми четырьмя обвиняемыми состоял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8 декабря 1951 года и вынес приговор: заключение в исправительный 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сроком на 10 лет. Несмотря на написание подсудимыми кассационных жалоб в Верховный суд РСФСР, пригово-

вор остался в силе.

Ситуация для осужденных изменилась после смерти И.В. Сталина. 31 июля 1954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пересмотру уголовных дел постановила Генеральному прокурору СССР опротестовать пригов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суда за отсутствием в действиях Син Чун У, Син Бон Гюна, Ким Ен Гвана и Квон Мен Сана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13 января 1955 года Президиум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СФСР отменил приговор и постановил немедленно освободить осужденных из-под стражи. 7 февраля 1955 года все четверо были освобожде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они содержались под стражей 3 года и 4 месяца 13 дней (Син Чун У) и 3 года 2 месяца и 12 дней – остальные. В апреле 2003 года Син Чун У, Син Бон Гюн, Ким Ен Гван и Квон Мен Сан были реабилитированы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РСФСР «О реабилитации жертв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от 18 октября 1991 года.

О дальнейшей судьбе этих четыр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м известно очень мало. Квон Мен Сан уехал в КНДР 27 октября 1956 года.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Пак Хен Чжу, Син Чун У также уехал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где работал переводчиком в посольстве и поступил в университет. Уехал в КНДР и Ким Ен Гван, где работал электриком в г. Вонсане и был награжден орденом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КНДР. Син Бо Гюн остался проживат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жил в город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до 1993 года).

В процессе расследования у Син Чун У были конфискованы

и переведены с корейского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ряд любопы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Среди них – «Манифест», «Устав» и номер газеты «Объединимся».

Манифест состоял из пяти частей – «Корейцы», «Корейцы на Сахалине», «Коммунисты из среды корейцев»,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задачами корейских коммунистов и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ью», «Призывы всем корейцам, проживающим на Сахалине». После краткого экскурса в историю Кореи, появл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и зарождения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ю, Син Чун У в манифесте указывает на цели и задачи своей партии. После необходимого уточнения для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то, что коммунисты возглавляют дело возвращения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на родину не является проявлением сопротивления против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Син Чун У пишет: «ближайшей целью на Сахалине является ускорение возвращения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этой цели коре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развертывают движение объединения», «Советскому правительству нужно отправить корейцев на родину. Все равно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цы вечно жить не будут»,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не считаясь с вероисповеданием и разногласием политического мнения, полны решимости возвратиться на родину». Заканчивается манифест словами: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на родину самотеком не придет. Это можно завоевать только путем борьбы».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СО (журнал «Проблем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새고려신문 살리자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7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Нодон синмун»: СК будет укреплять свою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СК намерена а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укреплением своей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Об этом пишет 11 января глав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В статье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СК обладает разли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доставки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над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м которого идет работа.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США не стоит расслабляться только по той причине, что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отделили более 10 тыс. км.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близок день, ког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ая баллистическая ракета заставит США понервничать. Данное высказывани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ов, вкупе с новогодней речью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может указывать на предстоящую стратегическую провокацию. В статье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независимо от чьего-либо признания, СК является ядерной и военной державой Востока, которая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народ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отнош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тщательно обдумать возможные последствия подобной «игры с огнем». В газете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отныне Север избирает превентивный удар в качестве ответа на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врага.

## 10 января в РК начались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поезд на праздничный период

10 января начались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поезд на период праздника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с 27 по 30 января. Продажи проводились с 9 до 11 часов утра на вокзалах и в специальных билетных пунктах. На сайте корпорации «Коре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Korail) они проходили с 6 до 15 часов.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билетов на самые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поезда распродана. По разным дням проводится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на поезда, отправляющиеся в разное время.

## Молодожены и молодые бизнесмены получают льготы

В РК молодожены, которые вступят в брак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ующих трех лет,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на сумму до 1 млн вон или 836 долларов. При этом оба супруга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Если речь идет о вступлении в брак человека,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дохода, то он также получает льготы в размере до 400 долларов. Кроме того,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переведут времен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в штат, получат налоговые льготы до 4 тыс. долларов за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Эти и другие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стабилизацию рынка труда, подготовлены министерством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Налоговые послабл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молодоженов решено ввести до 2019 года. Размер налогового послабления в отношении малых и средних компаний, увеличивающих численность штатного персонала, вырастет с 4 до 6 тыс. долларов, в отношении крупных компаний отметка вырастет с 1,6 тыс. до 2,5 тыс. долларов.

##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РК обсуждает снижение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9 января парламентский комитет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нутренних дел утвердил проект внесения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 о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т понижение минима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с нынешних 19 до 18 лет. Инициатива была принята в подкомитете по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ыборов. Далее законопроект должен быть рассмотрен на общем заседании комитет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внутренних дел,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и судебно-правовым вопросам, а также на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голосовании в подкомитете этот проект был одобрен единогласно, получив поддержку как оппозиции, так и правящих сил. Ранее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онижения избирате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указывали в Центральной избирательной комиссии, которая приводила в качестве довода мировую практику.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ОЭСР, кроме РК, данный возраст не превышает 18 лет.

## Поп-группа Big Bang попала в тридцатку мировых знаменитостей моложе 30 лет

Американский журнал Forbes включи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мужскую группу Big Bang в список 30 мировых знаменитостей моложе 30 лет,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в среду на сайте журнала. Это единственная 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в списке, в котором такие мировые звезды как американская актриса Хиллари Дафф, австралийский и американс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баскетболист Кайри Ирвинг, американский певец жанра ритм-энд-блюз Джереми. Big Bang также включена в список 30 знаменитых мировых музыкантов моложе 30 лет.

(RKI)

## Южная Корея перессорилась со всеми соседями

В непрост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положении оказалась Южная Корея. По разным причинам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серьезно перессорился с ближайшими соседями - Китаем, Японие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Эксперты же отмечают, что найти выход из положения будет не так-то просто, а, скорее всего, придется ждать прихода в Южной Корее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торому будет проще попытаться "начать с чистого листа".

"Принципиальная дипломатия", которую пару лет назад провозгласил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ак Кын Хе, привела к неожиданным результатам. Причем теперь "сдать назад" Сеулу будет крайне сложно как раз из-за того, что все конфликты приобрели характер, когда стороны "идут на принцип" и не намерены уступать.

Резко и крайне быстро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обострились отнош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с Японией из-за неоднозначного реш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Юга установить напротив генконсульства (ГК) Японии в Пусане стацию-памятник "сексуальным рабыням" - кореянкам, которых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заставляли работать в борделях для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В конце дека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ак Кын Хе подписало с Японией соглашение, которое, как тогда казалось, урегулировало спор по этому чувствительному для Кореи вопросу путем выплаты денежных компенсаций. Но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Кореи резко негативно восприняла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и, как только Пак Кын Хе была объявлен импичмент, то сразу появились трещины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Аналогичная статуя рабыням стоит уже у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но вот на второй памятник и еще после подписан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Токио решил жестко отреагировать. Вчера в Японию был временно отозван посол Японии в Корею. Этот жест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радикальных для мира соврем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роме того, Япония заявила, что прекращает переговоры с Южной Кореей о своповых сделках в валюте именно из-за установки статуи в Пусане. Корейский МИД немедленно выразил "глубокое сожаление" действиями Токио. В аналогичных тонах высказались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финансисты Кореи, подчеркнув,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и финансов не должно страдать из-за политических разногласий. Вместе с тем, согласно информации корейских СМИ, Сеул не ожидал, что Япония так чувствительно отреагирует и пойдет на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Под угрозой находится теперь и реализация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б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Этот договор, как и сближение Сеула и Токио, долго продавливал Вашингтон и, казалось бы, преуспел в этом, но вот теперь все опять начало рушиться на глазах. Военные двух стран говорят, что, как минимум временно, о японо-южнокорей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дется забыть.

Не лучше ситуация для Сеула и на "китайском фронте". Вновь

вспыхнула тема размещения комплексов ПРО США в Корею. Китай ранее предупреждал, что не оставит эти шаги Кореи без последствий и, как стало уже полностью очевидно, начал "наказывать" Сеул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Под ограничения попали работающие в Китае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в Поднебесной стали ограничивать приток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показы кино, работу звезд эстрады и кино РК, которые в Кита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зарабатывают неплохие деньги. Глава МИД Китая Ван И недавно в беседе с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депутатами Южной Коре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извал отложить размещение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Однако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в лице МИД и Минобороны очень быстро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ничего менять не намерены, а противоракетные системы США появятся в согласованные с Вашингтоном сроки, нравится это Пекину или нет. На следующий же день СМИ Китая дали понять, что Пекин может нанести новый удар, ограничив продажи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й в Поднебесн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сметики. Сеул же в случае размещения ПРО США был назван "переводным отрядом американской экспансии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е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НР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и, что санкционные меры Китая в отношении Юга будут нарастать по мере приближения даты поставки систем ПРО.

Если отношения Сеула с Пекином и Токио временами напоминают катание на американских горках со взлетами и стремительными падениями, то отношения с единственным сухопутным соседом у Юга -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 очень стабильны в своем полном "минусе".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инципиальный подход" Пак Кын Хе вылился в то, что все связи с КНДР были прекращены, меж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парк в Кэсоне прекратил работу, а Сеул открыто выступает за наращивание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полную изоляцию КНДР и явно делает ставку на крушение режима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Пхеньян не дал повода, проведя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ракетных и ядерных испытаний, но результат однозначный -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на "полном нуле" и, наверное, в худшем состоянии за всю историю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53 г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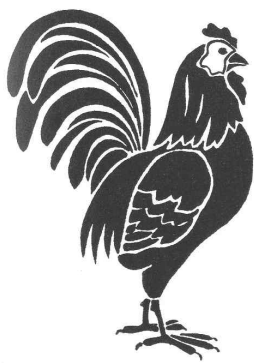
С победой на выборах в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явились у Сеула опасения и по поводу своего главного союзника. В Сеуле явно хотели бы видеть Хиллари Клинтон президентом, что прекрасно знает окружение избр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но теперь приходится думать, как жить дальше вместе. Завтра в Вашингтон отправляется глава Управления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Ким Гван Чжин, который контролирует весь спектр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еула. Ким попытается выяснить, каковы конкретные планы Трампа в регионе. Южная Корея опасается, что новый президент США может заставить платить Сеул за пребывание американск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больше, будет настаивать на оплате Сеулом

размещения систем ПР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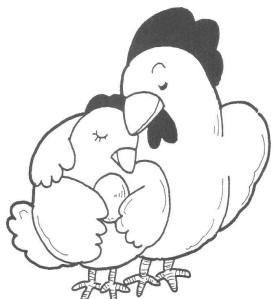
Пожалуй, единственны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з расположенных рядом ключевых держав, с кем Сеул не успел всерьез поссориться, является Россия. Москва и Сеул осознают, что у них диаметрально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подходы по той же проблеме ПРО США, а также сильно расходятся точки зрения на способы 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ы. РФ также не очень радуется,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хотя формально и не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санкциям против России, но все же, в целом, очень не спеши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Москвой, явно оглядываясь на советы из Вашингтона. Здесь скорее стороны решили не портить друг другу нервы, а пытаются не "заострять" противоречия. "И мы, и корейцы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ем все наши расхождения. Продолжаем пытаться работать и дальше, хотя сейчас понятно, что у нас с Пак Кын Хе не особо заладилас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из-за ее явного следования в фарватере Вашингтона, но, в то же время, мы смогли избежать и сильных скандалов. На фоне отношений южан с теми же японцами, китайцами и северянами это уже достижение", - отметил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близкий к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кругам РФ эксперт по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Для Сеула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те вопросы, где они "схлестнулись" с Японией, Китаем и КНДР являются уже "делом принципа", а потому уступить не намерен ник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арализовано из-за кризиса с импичментом президенту. Судя по общей ситуации, Пак Кын Хе крайне сложно будет вернуться в кресло лидера, а если даже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отменит импичмент, то это скорее спровоцирует еще более серьезное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и неприятие ее обществом и приведет к новым акциям протеста. Статуя перед генконсу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Пусане будет крайне сложно убрать именно из-за крайне негативной реакции общества к соглашению с Японией. С Китаем тоже после сказанного Сеул уже не сможет уступить без потери лица, а потому рост нажима со стороны КНР неизбежен, который вскоре уже затронет сферу политик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е ограничиваясь экономикой. Про КНДР же "и говорить нечего" - здесь, как минимум при нынешн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га, никаких подвижек нельзя ожидать. Как Юг, так и Север решил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друг другу характер, а потому уступки невозможны. В этой связи, как отмечают местные эксперты, единственным способом выхода из тупика является появление нового высшего руководства в Южной Корее, что произойдет в этом году в ходе выборов президента. Новый лидер сможет по давней 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традиции "начать все с чистого листа", имея возможность сказать, что "это все сделал предыдущий президент, я готов действовать иначе". Судя по подходу, именно этого сейчас ожидают окружающие державы, да и сама Южная Корея, где внутриполитический кризис стал отражаться и н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Сеул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07.01.2017)



2017년



		1월 음력 12-1월					2월 음력 1-2월					3월 음력 2-3월				
월		2 5	9 12	16 19	23 26	30 3		6 10	13 17	20 24	27 2		6 9	13 16	20 23	27 30
화		3 6	10 13	17 20	24 27	31 4		7 11	14 18	21 25	28 3		7 10	14 17	21 24	28 3.1
수		4 7	11 14	18 21	25 28		1 1.5	8 12	15 19	22 26		1 2.4	8 11	15 18	22 25	29 2
목		5 8	12 15	19 22	26 29		2 6	9 13	16 20	23 27		2 5	9 12	16 19	23 26	30 3
금		6 9	13 16	20 23	27 30		3 7	10 14	17 21	24 28		3 6	10 13	17 20	24 27	31 4
토		7 10	14 17	21 24	28 1.1		4 8	11 15	18 22	25 29		4 7	11 14	18 21	25 28	
일	1 12.4	8 11	15 18	22 25	29 2		5 9	12 16	19 23	26 2.1		5 8	12 15	19 22	26 29	
		4월 음력 3-4월					5월 음력 4-5월					6월 음력 5-5월(윤)				
월		3 7	10 14	17 21	24 28	1 4.6	8 13	15 20	22 27	29 4			5 11	12 18	19 25	26 3
화		4 8	11 15	18 22	25 29	2 7	9 14	16 21	23 28	30 5			6 12	13 19	20 26	27 4
수		5 9	12 16	19 23	26 4.1	3 8	10 15	17 22	24 29	31 6			7 13	14 20	21 27	28 5
목		6 10	13 17	20 24	27 2	4 9	11 16	18 23	25 30			1 5.7	8 14	15 21	22 28	29 6
금		7 11	14 18	21 25	28 3	5 10	12 17	19 24	26 5.1			2 8	9 15	16 22	23 29	30 7
토	1 3.5	8 12	15 19	22 26	29 4	6 11	13 18	20 25	27 2			3 9	10 16	17 23	24 윤 5.1	
일	2 6	9 13	16 20	23 27	30 5	7 12	14 19	21 26	28 3			4 10	11 17	18 24	25 2	
		7월 음력 (윤)5-6월					8월 음력 6-7월					9월 음력 7-8월				
월		3 10	10 17	17 24	24 2	31 9		7 16	14 23	21 30	28 7		4 14	11 21	18 28	25 6
화		4 11	11 18	18 25	25 3		1 6.10	8 17	15 24	22 7.1	29 8		5 15	12 22	19 29	26 7
수		5 12	12 19	19 26	26 4		2 11	9 18	16 25	23 2	30 9		6 16	13 23	20 8.1	27 8
목		6 13	13 20	20 27	27 5		3 12	10 19	17 26	24 3	31 10		7 17	14 24	21 2	28 9
금		7 14	14 21	21 28	28 6		4 13	11 20	18 27	25 4		1 7.11	8 18	15 25	22 3	29 10
토	1 5.8	8 15	15 22	22 29	29 7		5 14	12 21	19 28	26 5		2 12	9 19	16 26	23 4	30 11
일	2 9	9 16	16 23	23 6.1	30 8		6 15	13 22	20 29	27 6		3 13	10 20	17 27	24 5	
		10월 음력 8-9월					11월 음력 9-10월					12월 음력 10-11월				
월		2 13	9 20	16 27	23 4	30 11		6 18	13 25	20 3	27 10		4 17	11 24	18 11.1	25 8
화		3 14	10 21	17 28	24 5	31 12		7 19	14 26	21 4	28 11		5 18	12 25	19 2	26 9
수		4 15	11 22	18 29	25 6		1 9.13	8 20	15 27	22 5	29 12		6 19	13 26	20 3	27 10
목		5 16	12 23	19 30	26 7		2 14	9 21	16 28	23 6	30 13		7 20	14 27	21 4	28 11
금		6 17	13 24	20 9.1	27 8		3 15	10 22	17 29	24 7		1 10.14	8 21	15 28	22 5	29 12
토		7 18	14 25	21 2	28 9		4 16	11 23	18 10.1	25 8		2 15	9 22	16 29	23 6	30 13
일	1 8.12	8 19	15 26	22 3	29 10		5 17	12 24	19 2	26 9		3 16	10 23	17 30	24 7	31 14

정유년

- 음력설 1.28
- 한식 4.5
- 단오 5.30
- 초복 7.12
- 중복 7.22
- 말복 8.11
- 추석 10.4
- 성탄절 12.25



절기 소대입우 경춘 청곡입소 망하소대입처백추한상입소대동  
 한한춘수칩분명우하만중지서서추서로분로강동설설지  
 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양력) 일 5 20 4 18 5 20 4 20 5 21 5 21 7 23 7 23 7 23 8 23 7 22 7 22

### Окончила свой земной путь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С прискорбием сообщаем, что 3 января российское корееведение понесло большую утрату: не стало Розы Шотаевны Джарылгасиновой (1931 – 2017) – историка, этнографа, культуролога, автора свыше сотни научных публикац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 две монографии по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Роза Шотаевна начала свой путь исследователя в стенах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акультета МГУ, где её первым учителем и наставником, а впоследствии товарищем и коллегой стал Михаил Николаевич Пак – человек, стоявший у исток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орееведения. В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Розе Шотаевне преподавали и другие крупные советские учёные: Г. Ф. Ким, А. М. Пак, И. И. Хван, Цой Денху (КНДР).

Окончив в 1954 г. отделение Востока истфака МГУ,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поступила в аспирантуру при Институте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ныне Институт этнологии и антропологии имени Н. Н. Миклухо-Маклая РАН), по окончании которой защитила в 1962 г. кандидат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Позднее, в 1986 г., в том же научном заведении защитила докторскую диссертацию.

Среди коллег и учеников Роза Шотаевна пользовалась непрерываемым авторитетом как глубокий знаток и духовного, и материаль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ладея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ским, японским и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ами, но и ханмуном (корейизированным вариантом древнекитайск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языка *вэньянь*), Р. Ш. Джарылгасинова одинаково свободно занималась как «кабинетной» работой с историческими источниками и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ой, так и полевым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В частности, неоднократно совершала экспедиционные выезды и научные командировки в места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Отсюда – широчайший спектр тем, которыми занималась Роза Шотаевна, где на одном полюс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труды по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Кореи и проблемам этногенез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по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и ономастике, а на другом – научные публикации о быте, одежде, обычаях и обрядах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Всю свою жизнь проработав в ИЭА РАН, Роза Шотаевна по совместительству читала курсы лекций в Институте стран Азии и Африки при МГУ и в Институте практиче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Преподавая студентам историю, культуру, историю религий и этнографию Кореи, она учила будущих корееведов любознательности и, как бы мы сейчас сказали, толерантности, с первых же занятий прививая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интерес, любовь и уважение к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и его культуре. Причём делала это ненавязчиво, заражая собственным примером, энтузиазмом и обаятельной интеллигентностью.

Чуткое, внимательное и подчёркнуто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студентам и молодым учёным отмечали и отмечают все, кому хотя бы раз довелось встретиться с этим светлым человеком.

Многие из её бывших студентов уже сами стали признанными величинами каждый в своей области: кто в науке, кто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кто в бизнесе, кто в журналистике. И тот вклад, который ученики Розы Шотаевны вносят в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добросо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можн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считать плодом её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етлая память учёному, педагогу и большому человеку!

Кирилл Ермаков

###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Урок 16

### 아주 재미있는 수필을 읽어 볼 겁니다

(2016년 49호의 계속)

(5) -(으)르 리 만무하다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

Примеры:

네가 그것을 모를 리 만무하다.

→ Не может быть, чтобы ты не знал об этом.

그것이 사실일 리가 만무하네요.

→ Это не может быть правдой.

그럴 리가 만무해요.

→ Эт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쓰기연습 **Письменное упражнение**

1. 보기와 같이 '-만큼'을 넣어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값이 비싸다 / 질도 좋다.

→ 값이 비싼 만큼 질도 좋다.

(1)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다 / 대가를 얻었다.

→

(2) 남에게 먼저 베풀다 / 받는 법이다.

→

(3) 도서관은 숨소리가 들리다 / 조용하였다

→

(4)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 / 너무 무서웠다.

→

(5) 신제품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 꼭 성공할 것이다.

→

2. 보기와 같이 '-(으)르 나위가 없다'를 사용하여 ( ) 안의 단어를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은 더 (말하다).

→ 아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 당신이 나의 천사인 것은 더 (말하다).

→

(2) 우리 누나는 (말하다) 미인입니다.

→

(3) 시르다리아 강은 낚시로는 (더하다) 좋은 장소이다.

→

(4) 이 소설책은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두말하다).

→

(5) 돈 없어도 마음이 부자면 (더하다).

→

3. 보기와 같이 '-(으)르 듯 말 듯'을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완성하십시오.

보기 오늘은 비가 (오다) /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

→ 오늘은 비가 울 듯 말 듯 날씨가 오락가락 한다.

(1) 그는 (가다) / 망설이다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

(2) 여배우들이 (보이다) / 옷을 입고 무대에 출연하였다.

→

(3) 점심을 조금 먹었더니 / 배가 (고프다).

→

(4) 산토끼는 곧 (잡히다) / 사냥꾼의 마음을 태웠다.

→

(5) 남자는 처음에는 여자에게 고백을 (하다) / 결국은 그 여자하고 사귀게 되었다.

→

4. 보기와 같이 '-따름이다'를 사용하여 밑줄 친 부분을 바꾸어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일 따름이에요.

(1)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다.

→

(2) 오늘 약속 장소에 늦어서 미안하다.

→

(3) 이 연극을 친구와 함께 보고 싶었다.

→

(4)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 반갑다.

→

(5) 외국 여행을 가 영어를 못하면 답답하다.

→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 [우리말로 깨닫다]

### 새해, 참 좋다

'좋다'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좋다는 말을 해 보면 이 말은 그대로 감탄사가 된다. 아, 좋다!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좋다가 아닐까 싶다. 하루에 좋다는 단어를 몇 번이나 쓸까? 정말 엄청나게 쓸 것이다. '기분이 좋다, 맛이 좋다, 사람이 좋다, 날씨가 좋다, 엄마가 좋다, 그대가 좋다'등등.

좋다는 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한국인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도 된다. 우리는 좋은 걸 좋아한다.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한다.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말 '좋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아하다'의 뜻이다. 봄이 좋다고 한다든지 엄마가 좋다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반대말은 '싫다'이다.

좋아한다는 말은 동사이고 좋다는 형용사인 것처럼 구분 하지만 좋다는 말에도 동사의 느낌이 있는 경우가 많다. 봄이 좋다는 말이나 봄을 좋아한다는 말의 느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싫다는 말은 어원적으로 슬프다와 같다. 싫은 게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좋다'의 두 번째 뜻은 '훌륭하다'이다. 이 의미의 반대는

'수준이 낮다' 정도이다. 물론 사람들은 그냥 '나쁜'을 반대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회사, 좋은 학교,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뛰어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훌륭하다는 의미이다. 사람들은 좋은 회사를 다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좋다는 말이 훌륭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좋은 직업이라는 말, 좋은 대학이라는 말, 좋은 차별의 느낌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모든 이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 또한 내가 잠시 다른 기준에 흔들려서 좋지 않은 것을 좋다고 말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 뜻은 '옳다, 바르다'의 의미이다. 이 뜻의 반대말은 '나쁘다'이다. 잘 못 된 것을 나쁘다고 표현한다. '악'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편을 가를 때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나눈다. 사람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눈다. 어릴 때 장난감 비행기를 가지고 놀 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비행기와 미국 비행기는 좋은 편, 북한 비행기와 소련 비행기는 나쁜 편이라고 구별하였던 기억이 있다.

좋은 편을 우리 편이고 나쁜 편은 무조건 남의 편이었던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울

은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나쁘게 바라보던 태도에는 쓸쓸함도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좋아하는 것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보인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석양설과 성선설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인간이 원래부터 악한 것을 좋아했는가, 선한 것을 좋아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인간은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좋다'의 의미를 '옳다'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착한 행동을 보면 기쁘고 칭찬하여야 한다. 나쁜 일을 보면 슬퍼하고 꺼려야 한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잘못을 했으면 죄를 느끼고 반성하여야 한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

새해를 맞아 좋은 나라, 좋은 세상, 좋은 사람을 꿈꾸어 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참 좋다는 말이 나오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 고생한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참 좋다는 말이 나왔으면 한다.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참 좋은 세상이 아닌가?

조현웅,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원장

# 이모저모

(2면의 계속)

## 사할린주민, 도서 지역 역사강의에 초대

사할린주 형성 70주년에 맞추어 <사할린 쿠릴의 인물들> 전시기획의 일환으로 <사할린 섬> 체호브의 책 문학미술박물관은 1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개최되는 역사강의에 초대한다.

강의에 참석자들은 사할린주의 종전 이후 역사, 40-50년대의 광업, 석유산업, 수산업 및 임업 등 산업발전사에 대해 배우게 되고 사회노동 영웅, 사할린 및 쿠릴의 예술가, 작가와 시인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접하게 된다.

강의는 새로운 전시 공간으로 접어드는 전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전시품과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5명 이상의 그룹 신청은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하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사전 등록은 43-65-09 전화로 가능.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лек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истори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очного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в лицах", приуроченного к 70-летию со дня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с 12 января по 16 февраля приглашает посетить лекции.

На них гости музея узнают об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о развитии угольной, нефтяной, рыбной и лес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40-50 годах. Также на лекциях расскажут о Героя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Труда, художниках, писателях и поэт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Рассказ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в экспозиции, что позволит окунуться в атмосферу новой выставки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ее экспонатами.

Коллективные заявки (от пяти человек) принимаются в любое удобное время,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запись проводится по телефону: 43-65-09.

## 새해 방학기간 체호브센터 관객 1 만 3000 명을 대상으로 한 113 개 행사 진행

사할린 아.페.체호브국제연극센터에서는 신년행사를 총결산 했다. 2016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월 8일까지 체호브센터에서는 113개의 행사가 이루어졌고 방문객은 1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주무대에는 대규모 화려한 새해 연극이 올랐다.

동화극 <모로즈코>(알렉산드르 아게예브 감독)는

35회 공연했고 <마법의 숲속에 신기한 모험>은 순회공연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 돌린스크, 아니와 주민들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연극은 총 30회 공연이 이루어졌다.

자선공연도 수차례 펼쳐졌다. 12월 23일 체호브센터 배우들은 <프레오돌레니예(극복)> 청소년 장애인 재활센터를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12월 30일은 주 아동병원을 방문하여 입원해서 새해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새해를 축하해주었다.

체호브센터에서는 제드 모로즈(주위 할아버지)와 스테고로즈카(백설공주)가 나가 어린이들에게 축하하기 위한 가족극장도 마련했다.

매해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 <스노우 콘서트> 새해 상호작용파티는 10개가 열렸다.

체호브센터는 성인들도 잊지 않고 새해 방학기간에 두 개의 연극을 큰 무대에 올렸다. 연극 <택시 운전사>와 <보잉보잉> 입장권은 이미 공연일 훨씬 전에 매진되었다고 체호브센터 홍보실이 전했다.

##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ий Чехов-центр провел 113 мероприятий для 13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ени А.П.Чехова подвели итоги новогодней кампании. Всего с 22 декабря 2016 года по 8 января 2017 года Чехов-центр провел 113 мероприятий,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3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Традиционно на главной островной сцене был показан красочный масштабный новогодний спектакль. Все-го сказку "Морозко" (режиссер Александр Агеев) сыграли 35 раз. Выезд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евероятные приключения в волшебном лесу" (режиссер Наталья Шаркова) увидели зр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олинска и Анивы. Всего спектакль был показан 30 раз.

Было сыграно несколько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Так, например, 23 декабря артисты Чехов-центра отправились в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центр для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реодоление", а 30 декабря — побывали в областной детской больнице, где поздравили с наступающими праздниками детей, оказавшихся в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в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Для поздравления ребят на дому театр организовал выезды Деда Мороза и Снегурочки. В этом году новогодние волшебники посетили порядка ста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Для подростков в театре прошли 10 новогодних интерактивных вечеринок Snow Contact, которые с каждым годом становятся все популярнее.

Не забыл Чехов-центр и про взрослых: в дни новогодних каникул было показано два спектакля на большой сцене "Таксист" и "Боинг-Боинг", все билеты на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оданы задолго до дня показ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театр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 크라스노고르스크에 거주하는 문종기 씨께 드리는 축하문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любимого мужа, отца и дедушку с 70-летием!

Желаем здоровья, всегда быть бодрым, веселым, оптимистом. Удачи во всем!

Жена, дети, внуки и все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할아버지!

고희를(생신 7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밝은 모습으로 오래오래 저희들과 함께 계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사에 행운과 복을 기원합니다!

아내, 자녀, 손자녀 등

## 존경하는 문종기 크라스노고르스크 한인회장님!

고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년간 사할린한인동포를 위해 활약하신 데 대해 감사함을 드리며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며 자녀와 손자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할린주한인회 · 주이산가족협회 회장 박순옥  
사할린주한인노인회 회장 김흥지

## 알립니다!

사할린주한인회는 2017년 1월 27일 17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음력설맞이행사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장료는 1200루블리.

75세 이상의 1세는 무료입장.

입장권(유료, 무료 상관 없이)은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한인문화센터에서 받아야 합니다.

문의전화: 42-40-87

조직위원회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